

2019년 8월 18일 주일설교 :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13	
마 7:7-12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 ❖ 시작하는 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성경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 본문이 고민되는 것은,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때가 종종 우리 삶에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 ❖ 중심 되는 말씀

### 1. 하나님은 우리가 (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주님과 관계하며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요즘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7절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록하신 건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때에 주님의 응답이 오지 않아 낙담하고 기도를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상황이 맞지 않아 주님은 응답을 지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또 다시 물어야 할 질문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지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이 되어갈 것입니다.

나눔 질문) \_\_\_\_\_

### 2.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 )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9-11절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를 빗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고 절절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부모가 당연히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믿음이 마음에 생겨나고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을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나눔 질문) \_\_\_\_\_

### 3. 하나님을 ( )으로 대접해 드려야 합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12절의 말씀을 우리들 사이의 이야기로 생각해 왔습니다. 누군가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것을 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여겨왔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7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이야기에 대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다시 읽어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려야 한다는 말씀으로 읽히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대접하는 게 옳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한다면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대접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눔 질문) \_\_\_\_\_

## ❖ 정리하는 말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시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필요를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나를 바꿔가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선택해가는 내 모습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며 ‘이는 내 벗이다’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 임재찬양 “예배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기뻐하시리 주님 기뻐하시리

### ◆ 마음문 열기 한주간 감사나누기, 게임

##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 찬송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찬272)

- 1)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 2)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 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 3) 교만한 맘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 4)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뵈오려고 주께로 갑니다

###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매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기도

##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